

코로나 19 대응 동향

2020.4.2.
- 제8호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소: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전화: 012 460 2508
이메일: embsa@mofa.go.kr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페이스북: @KoreanEmbassySouthAfrica



1. 일반 동향

- ◆ 남아공 봉쇄조치(lockdown) 3.26 자정~4.16 자정
- ◆ 확진자 및 사망자수 지속 증가(41(수) 기준 확진자1,380명)

- 4.1(수) 기준 남아공 내 확진자 수는 총 1,380명이며, 총 누적 사망자는 5명입니다.
- 현재까지 누적 회복자수는 50명이며, 누적 검사자수는 44,292명입니다
- 하우텡의 Duduza Clinic 보건소가 간호사 한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동인은 블룸폰테인에서 3.10 진행된 교회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별 확진자 통계 (괄호는 사망자수)

하우텡	645 (1)	웨스턴케이프	326 (1)
과줄루나탈	186 (2)	프리스테이트	76 (1)
음푸말랑가	12	노스웨스트	9
림포포	14	이스턴케이프	15
노던케이프	7	기타	90

- ◆ 남아공 보건부, 이동식 검사 차량 67대 배치 예정
- 남아공 보건부는 국가보건실험부의 기존 이동식검사차량 7대에 신규로 60대를 추가하여 국내 전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이동식검사차량은 비안두 검체 채취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1회 45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곧 독감시즌이 다가오는 바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해지는 인구증가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동식 검사차량 외견

- ◆ 남아공 정부, 보건요원 동원 감염여부확인 실시
- 남아공 보건부는 1만명의 지역사회보건요원을 동원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 가정방문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door-to-door screen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흑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검사를 가장한 강도가 있을 수 있으니 교민분들께서는 출입문을 열지마시고 원거리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 ①검사원은 ID 배지 및 남아공 ID 소지, ②동일한 티셔츠 착용, ③경찰관(SAPS)이 동행, ④검사는 자택 외부에서 실시

- ◆ 삼성전자 남아공법인 및 Telkom사, 코로나19 추적을 위한 휴대폰 1,500여대 기증

- 남아공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인·추적 노력 지원의 일환으로 4.2(목) 삼성전자 남아공법인과 남아공 Telkom사가 1,500여대의 휴대폰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 ◆ 해외체류 남아공인 8명,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남아공 입국

- 남아공공항공사는 4.1(수) 해외체류 중이던 남아공 8명이 에미레이트 화물항공기로 OR Tambo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 항공기는 지난 화요일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동인들은 최대 21일 동안 격리될 예정입니다.

2. 봉쇄 조치

- ◆ 봉쇄조치 기간 중 군인 및 경찰 과잉단속 논란

- 봉쇄조치 기간 중 군·경의 과잉단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교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교민 여러분께서는 봉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한 출입 및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다컴·디스커버리, 코로나19 상담서비스 제공

- 디스커버리, 보다컴 서비스 가입자들은 각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의심증상에 대한 자가진단 및 무료 화상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UNISA 교원, 코로나19 확진 판명

- UNISA는 수요일 학과 교수의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수는 웨스턴케이프에 위치한 George에서 휴가 후 돌아왔기에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Muchleneuk 캠퍼스에 위치한 Winnie Madikizela-Mandela건물은 폐쇄되었으며 소독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 흑인 미니버스(택시)·개인차량 허용 정원 및 운영시간 변경

- 교통부장관은 봉쇄조치와 관련 대중교통에 대한 규율을 완화, △차량의 경우 운전자 외 최대 2명의 탑승을 허용하고 △흑인미니버스(택시)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 시 최대 인원 탑승을 허용하였습니다.

- 지정된 마스크(N95 또는 수술용)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탑승인원을 탑승용량의 50%에서 최대 3분의 2 또는 70%까지 늘려, 15인승의 경우 10명, 10인승인 경우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흑인미니버스(택시) 운영시간을 오전 5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허용하였습니다.

3. 경제 관련

◆ 주요 상업 시설 영업시간 안내

상업 시설	일자	시간
울워스	매일	09:00-17:00
게임	주중	09:00-17:00
	일요일	09:00-15:00
	일요일	09:00-13:00
픽엔페이	주중	09:00-18:00
	토요일	08:00-17:00
	일요일	09:00-16:00
체커스	매일	07:00-18:00
클릭스	주중	08:00-16:00
	토요일	09:00-15:00
	일/공휴일	09:00-14:00

◆ 남아공전력공사, 락다운 기간 동안 풍력발전 전기 구매 중단(4.1)

- 남아공 전력공사 (Eskom)는 봉쇄조치로 7,500MW의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남아공 전력공사의 발전 여력이 충분하여 동 기간 동안 풍력발전을 이용한 독립발전사업자(IPP)로부터의 전력구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풍력발전은 이른 아침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전력 수요가 높은 광산, 용광로 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중단된 전력공급은 추후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보충될 예정입니다

◆ 피치, 남아공 주요 은행 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정크) 등급으로 강등(3.31)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3월 31일, 스탠다드, 네드, 퍼스트랜드, 압사, 인베스텍 등 남아공 5개 시중 은행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정크) 등급 중 최고인 BB+에서 한 단계 아래인 BB로 강등하였습니다.
- 감등의 이유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남아공 금융운영환경의 악화를 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은행 고객활동이 감소하고 이자율 인하로 은행 이윤마진이 줄고 신용손실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광물가격 하락, 관광매출 감소, 광업활동과 제조업 중단 사태수습에 따른 국가재정 압박 등으로 거시경제위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020년 은행업종지수는 모든 업종의 주가지수가 23%하락 시 41.19%까지 하락하였으며, 3월 30일 오전 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JSE)의 은행업종지수는 대부분 다른 업종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29% 상승하였습니다.

◆ LP 가스 가격 인하

-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도 인하되어 가정용 LP가스가 14~16% 인하된 19.68랜드/kg ~ 24.11랜드/kg에 구입가능, 이로 인해 겨울철 연료비 부담 절감이 예상됩니다.

◆ 에스테이트와 콤플렉스에서 조깅이나 개를 동반한 산책 등 금지

- 락다운 기간동안 에스테이트나 콤플렉스에서 조깅, 개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것, 공동 정원, 주차장 등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음식이나 약품 배달, 노인 돌보미, 그 외 필수적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의 에스테이트 방문은 허용됩니다.

4. 영사 관련

◆ 모든 한국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실시(4.1(수) 0시부터)

- 우리 정부는 4.1(수) 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내국인 포함)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격리비용에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 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함
 - △ 격리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제공되며,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
 -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 4.5.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사전 시설격리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동의 내용) 14일간 시설격리 조치 및 비용 징수 동의 여부
 - (동의서 징구 및 발권) 항공사 창구에서 탑승권 발권 전 동의서 설명 후 징구하고,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됨.
- ※ 법적근거: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격리예외(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진행 예정
 - ※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통화 확인, 출국 확인)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 필요서류 : 초청회사에서 작성한 격리면제 신청서, 격리면제서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여권 및 여권사본, 남아공 (또는 검임국) 거주 비자 원본 및 사본, 한국기업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정부 또는 지자체 초청서(공문 등), 이외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 모든 한국으로 입국 내·외국인들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을 사전 설치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대상자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 Play스토어/앱스토어'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검색·설치)
 - 자가진단앱 설치 대상자 : 단기체류자 및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 ※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링크: <http://ncov.mohw.go.kr/selfcheck/>)

◆ 보츠와나

- (확진자 동향) 4.1.(화) 기준 확진자 4명,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시시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 판정 발표(4.1)
 - 1856명 격리조치, 증상 의심자 593명(189명 음성 판정)
- (기업 지원 대책) 코로나19 구호기금의 초기자금으로 20억 풀라 투입, 피해 기업에 대한 직원 봉급 50% 지원, 시민기업개발청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4천만 풀라 배정, 피해 부문에 대한 은행권의 3개월 지불유예(6개월 연장 옵션), 정부기관은 5일내 준정부기관은 24시간내 정부 발주권 지불, 부가세 신속 환급 등
- (턱다운 조치 실시) 4.2 자정부터 28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extreme social distancing), 사실상 락다운 조치를 개시하였습니다. 아래 필수 서비스 제공 및 필수품 운송을 위해서만 이동이 허용되며, 정부에서 발행한 "Covid-19 Travel Permit" 이 요구됩니다.



◆ 에스와티니

- (확진자) 3.30(월) 기준 에스와티니 내 확진자 수는 총 9명
- (국경 통제) 에스와티니 정부는 3.27.(금) 부 20일간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중인바, 에스와티니 국민 및 합법적 거주자들만 국경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 (들라미니 총리 성명 발표) 에스와티니 들라미니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분적 봉쇄조치 방침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과 봉쇄조치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총리는 정부가 △ 금리 및 기름값 인하, 전기세 동결, 차량허가증연장 범칙금 면제 △ 사회보조금 전자 수령 △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조달 계획 승인(현재까지 E1,800만 모금) △ 의료진 추가 확보의사 8명, 간호사 145명, 환경보건전문가, 구급대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의료진 교육 △ 물탱크(1개당 5천리터) 조달 및 지역별 배치 등을 조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5. 검임국 동향

◆ 레소토

- (의심자 발생) 국가비상지휘본부에 따르면, 8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가 발생하여 이들 샘플을 채취하여 남아공으로 검사 의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 레소토 의료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의심자들의 경우 합병 증상은 없으나, 8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의 경우 현재 사망하여, 사망원인 조사 중이라고 밝힘.
- (과잉 대응 논란) 레소토 국무총리가 봉쇄조치 기간 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군·경에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조치 실시 첫째 날인 3.30(월)부터 경찰과 군인들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 (봉쇄조치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5인용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 외 2명의 승객까지 탑승 가능하고, 미니버스의 경우 운전기사 외 9명 승객까지 탑승 가능하며,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06:00-10:00, 15:00-18:00이며, 10:00-15:00 동안에는 대중교통 운행은 제한됩니다.

6.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 동향

◆ 국내 확진자 동향

- 4.2(목) 0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총 9,976명(해외유입 601명*), 사망 169명이며, 총 누적 검사자 수는 431,743명입니다.

*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결과, 해외유입이 35%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으며, 3월 22일부터 일별 입국자 수가 1만 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19.) 약 90만명 → (2.3.~9.) 약 60만명 → (3.2.~8.) 약 11만명 → (3.23.~29.) 약 5.5만명]

◆ 우리 정부 주요 정책

- 코로나19 대응 아프리카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4.1)

- 외교부는 1일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산 및 이동제한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동 회의에는 △남아공 △모로코 △세네갈 △케냐 △코트디부아르 대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 공관장 5명 및 본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이동통신3사와 삼성·LG가 지원합니다.
 -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가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통신네트워크 및 EBS 등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같은 스마트 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삼성전자는 갤럭시탭A 3만대, LG전자는 G패드 6,000대를 각각 지원합니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청 보유 스마트 기기 및 추가 보급분 등 총 31만6000대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 대여합니다.

◆ 국제사회 동향

- 일본, '韓 전역' 입국 거부대상 지정
 -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주재한 코로나 19 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49개 국가와 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입국 거부 대상에 오른 지역은 기존 23개국을 포함해 총 73개 국가·지역으로 늘었습니다.
- 이탈리아, 코로나19 위기 전담팀 구성, "한국형 동선 추적 앱 개발 모색"
 -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가 한국 방식의 코로나19 감염자 등의 동선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 1일(현지시간)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올라 피사노 기술혁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각 분야 기술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담팀은 특히 △한국 방역 모델의 한 축인, 동선 추적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다수의 유력 언론들도 연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IMF "코로나19 위기는 전쟁... 정부, '전시'와 같은 대응 필요"
 -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각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위기에 맞서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기업,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IMF는 위기 대응 정책을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며 1단계는 '전쟁'이며 2단계는 '전후 복구'라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행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심각한 축소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1분기 또는 2분기 가량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상기 QR 코드를 통해 우리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접속,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